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여론 속의

여輿론論

2018. 01

40
YEARS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매월 정해진 기간에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이면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조사-기획조사-현안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조사는 해당 조사결과와 함께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심층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조사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 현안조사는 한국리서치 전문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하며, 개별적인 문의에 대해 상시적으로 응대하여 드립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전반 박종선 수석부장
전화 | 02-3014-0085
e-mail | have21c@hrc.co.kr

기획조사 정한울 여론분석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정기조사 오승호 차장
전화 | 02-3014-0167
e-mail | shoh@hrc.co.kr

01

기획조사 : 행복

- 한국리서치 매월 정기조사인 월간 한국은 <행복리포트>를 통해 행복의 개념을 정립하고, 한국인의 행복 인식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행복의 조건과 결정요인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이는 행복에 대한 기존 연구와 분석 및 한국의 행복 수준에 대한 다양한 평가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의식의 발로입니다.

- 한국리서치 2018년 1월에 실시한 1차 행복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모두 부정응답보다 긍정응답이 높아, “헬조선”으로 대표되는 한국사회 진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 경제적 부의 증가에도 행복 수준은 정체되어 있다는 ‘이스털린의 역설’과 상반되게, 월 가구소득 600만원까지는 행복감과 만족도가 상승하였으며, 1000만원까지는 정체, 1000만원 이상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2년 전인 2016년에 비해 20대의 행복감이 하락한 점도 주목되는 바, 향후 추이 또한 관심사라 하겠습니다. 행복하다는 응답은 고학력, 여성, 기혼자, 2인 이상 가구 등에서 높습니다.

- 본 조사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결과는 행복감은 종교와는 무관한 반면, 진보>중도>보수의 순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기능, 이념성향과 행복감과의 관계는 앞으로 관심을 두고 확인할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02

현안조사 : 최저임금과 일자리, 주식·부동산·가상화폐

- 최저임금 7530원이 높다(30%)는 응답보다 적당하다(36%)는 응답과 낮은 수준이다(31%)는 응답이 높습니다. 높다는 응답은 자영업자, 적당하거나 낮다는 응답은 판매/영업서비스직 및 학생 등에서 높습니다.

-응답자의 60% 이상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며, 저소득층 소득 향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상회(52%)합니다.

-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 방향에 응답자 다수가 찬성합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92%)과 소방관 경찰관 등 공공부문 채용규모 확대(83%) 찬성응답이 특히 높고,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77%)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75%) 정책도 찬성응답이 70%를 상회합니다.
- 응답자의 6%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재테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대는 14%가 활용하고 있고요. 광풍이라 할 수 있을까요? 가상화폐는 투자(5%)보다 투기(82%)에 가깝다는 응답이 압도적이며, 지금보다 규제를 강화(75%)하거나 지금 정도(10%)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85%입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정책 중 보유세 인상(73%)과 양도세 중과(70%)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59%)와 신DTI제도(57%) 찬성응답도 과반을 초과합니다.

03

정기조사 : 대통령 국정운영과 리더십평가, 경제/안보인식

- 문재인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6%로 전월(72%)에 비해 6% 하락하였습니다. 29세 이하에서 17%, 30대에서 15%가 빠졌습니다. 보수에서 10%, 중도에서 5% 떨어졌습니다. 6가지 차원으로 측정한 대통령 리더십 부문에서는 국가 위기상황 대처 하락 폭(7%)이 가장 컸습니다.
- 미국갤럽의 경제인식 지수를 차용하여 산출한 경제인식 지수는 -23이며, 안보지수는 -14입니다. 경제인식과 안보인식 모두 진보>중도>보수의 순으로 긍정적입니다. 이념성향 고유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일까요? 정부와 여당 지지 성향이 반영된 결과일까요? 앞으로 확인하여 볼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여론 속의

여輿論論

CHAPTER



01

기획조사 : 행복

01

첫 “행복 찾기” 조사를 시작한
퍼즐 세 가지Happiness Index for
Beyond GDP

행복감,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측정되는 행복지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행복은 GDP나 소득 등 객관적인 지표와 일치하지 않으며, 개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World Happiness Report 2017; Happy Planet Index 2016).

행복에 대한 높아진 관심은 물질적, 경제적 성취로 측정할 수 없는 중요한 삶의 가치가 존재하며, 이러한 가치에 대한 추구가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이미 행복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며 2000년대 이후 유엔 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SDSN), 미국 갤럽(Gallup), 유럽 신경경제재단(NEF) 등에서 지속적으로 행복지수를 발표하며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Helliwell and Wang 2014).

헬 조선 시대,
3불 사회의 도래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언론에서도 잇을만하면 한국인이 얼마나 불행한 나라인지 경종을 울리는 기사들이 도배를 한다. 한국은 각종 발표에서 경제성장 수준에 비해 행복체감도가 낮은 대표적인 나라로 꼽히고 있다. 더구나 최근 “헬 조선”, “분노 사회”, “3불(불신, 불안, 불만) 사회” 등 한국의 사회상은 부정적인 용어로 도배되고 있다. 2013년 대학가를 강타한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의 파문은 개개인의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과 행복(happiness)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과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최근 정부와 학계에서도 주관적 웰빙과 행복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문제 제기 차원을 넘어 대안 모색의 단계로 나아갈 때이다. 정작 심층적이고 실증적인 원인 진단과 대안을 찾아나가는 작업은 부족해 보인다. 해외에서 발표되는 순위 경쟁 식 접근은 “행복”조차 경쟁심리와 성취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한국리서치
<행복 리포트> 발간

이러한 문제의식이야말로 한국리서치 조사연구TF(팀장: 박종선)이 “행복”을 매월 정기 조사의 기획 주제로 잡은 출발점이 된 셈이다. 한국리서치 조사연구TF는 (가칭)<행복리포트> 시리즈를 통해 앞으로 한국인의 행복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분석해나감과 동시에 행복 개념의 정교화 및 척도 개발, 행복의 조건과 결정요인에 대한 조사분석 실험을 진행해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이 한국인의 주관적 웰빙과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진일보한 정책 제언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2018년 1월에 실시한 행복 조사 결과는 “행복”이라는 주제가 결코 일회성 조사나 가십성의 기획 보도로 멈출 수 없게 한다. 한국리서치 조사연구팀(팀장: 박종선 여론조사본부 사업1부장)은 앞으로 한국리서치의 매월 정기조사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행복인식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인식을 분석, 평가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세 가지 퍼즐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조사결과를 소개한다.

퍼즐1. 한국의 행복 순위, 58위인가? 118위 인가?

- “행복지수 1위 덴마크, 한국은 157개국 중 58위” (UN SNDC 발표 오마이뉴스 2016. 3. 17)
- “한국인 행복감, 143개국 중 세계 118위로 바닥권, 파라과이 1위 중남미 나라 Top 10 짝퉁” (Gallup 행복감 지수, 한겨레 2015. 3. 23)
- “한국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 행복 성적표는 50위권”(중앙일보-한국심리학회 2010. 8.18)

국제행복순위 발표, 한국의 웰조선 이미지 공고화

위의 내용은 한국인의 행복인식에 대한 언론보도 양상을 보여주는 기사 제목들이다. 공통적으로 한국은 경제수준에 비해 행복의 수준은 미흡하며, 한국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들에 비해서도 불행한 나라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특히 미국 갤럽이 발표하는 <Global Emotions Report>에 포함된 행복지수나 영국의 싱크탱크인 신경경제단(NEF)이 발표하는 <Happy Planet Index: HPI> 등에서는 실제로 한국은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UN SNDC <World Happiness Report 2017>이나 <세계가치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은 미국갤럽이나 신경경제단 의 발표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157개국 중 56위 수준으로 중상위권으로 평가된다.(WHR 2017). 최근 연구에 따르면 World Value Survey, Asian Barometer,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사회조사 데이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급격히 향상되어 왔으며”, “한국인들이 생각처럼 불행한 것은 아니다(Korea is not as unhappy as often perceived)”라고 주장하고 있다(Helliwell and Wang 2014).

세계 제1의 행복국가 : 노르웨이인가? 파라과이인가?

발표되고 있는 글로벌 행복지수 지표와 척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한국의 순위 편차 때문만이 아니다. 발표 결과들을 보면 발표 기관에 따라 Top 10, Bottom 10에 차이가 극명하다. 양 기관이 측정하는 행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다.

유엔의 지원 하에 발간되는 <World Happiness Report>는 개인의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 (cognitive life evaluation)” 척도로 알려진 미국갤럽의 세계조사에 포함된 0-10점 척도(켄트릴의 사다리 척도)를 사용하여 순위를 산정한다. 2017년 발표 보고서(2014-2016년 합산)한 결과를 보면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서구 선진국들이 상위 행복국가로 분류된다. 앞서 본 것처럼 한국은 중상위권 국가에 속한다(WHR 2017).

반면, 미국갤럽이 발간하는 <Gallup Global Emotions> 리포트는 실제 생활 속에서의 “정서적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지수를 산출한다. 미국 갤럽은 특정 시점(어제)에서의 긍정적 감정(5개 지표), 부정적 감정(5개 지표)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지수를 산출한다. 행복에 영향을 주는 감정의 경험을 증시하는 Gallup Emotions 보고서에서는 소득수준이나 경제규모가 뒤쳐지는 중남미 국가들이 최상위 자리를 점하고 있다(Gallup Global Emotions 2016).

부탄은 롤 모델?
삶의 만족도 97위
(WHR 2017),
감정 지수(갤럽) 기준
82위(2013),
HPI 56위(2016)

국민총행복지수(GNH)를 산출하며 국민행복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온 부탄은 한국에서 “세계 1위의 행복국가”, “95%가 행복하다”고 답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2017/05/10; KBS 2016/12/27). 그러나 세계행복리포트(WHR) 2017년 보고서에서 부탄은 97위였고,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낮은 중남미국가들이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갤럽감정지수(GER) 2013년 조사결과에서 부탄은 138개국 중 82위 수준이었다(Gallup News 2014/05/21)

부탄이 세계행복순위 1위라는 수식어의 연원을 영국의 대안 싱크탱크를 표방하고 있는 신경경제단(New Economics Foundation)에서 2010년(혹자는 2011년) 발표한 지구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신경경제단 홈페이지에는 2010년 혹은 2011년 조사결과 보고서는 올라있지 않다. 현재 HPI 홈페이지에서 부탄은 2006년 13위, 2009년 17위였다 2016년에는 56위까지 하락했다.

행복의 개념과 측정기준의 차이에 따라 국가별 평가나 전체 순위가 근본적으로 뒤바뀐다. WHR의 기준에 따르면 행복선진국의 롤모델은 북유럽, 서구의 선진국이 되는 반면, 갤럽의 감정지수를 수용할 경우 중남미 국가나 필리핀 등이 롤 모델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어떤 지수를 받아들이는가는 단순히 한국의 순위 차이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정의관련하여 근본적인 철학적, 이론적, 현실적 논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 행복지수를 소개하면서 각 지수들이 갖는 의미를 간과하고, 한국은 문제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한, 행복지수에 대한 논의는 “헬조선”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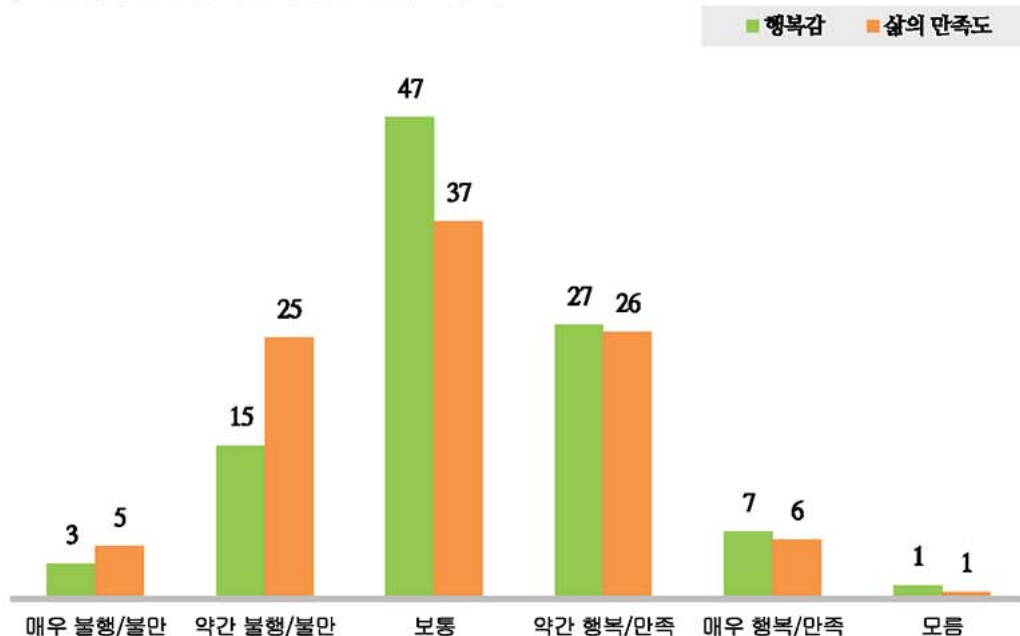
종류	세계행복리포트(WHR) -갤럽 세계조사(Gallup World Poll, GWP) 활용	갤럽 세계감정지수(Gallup Global Emotion Report)																																																																	
개념	전반적인 삶의 평가(cognitive life evaluation)	긍정/부정 감정의 경험(emotional experience)																																																																	
유사 조사 기관	• 세계가치조사(WVS) •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이하 GSS), 아시안 바로미터(Asian Barometer, 이하 ABS)	• 한국사회조사(Korean Social Survey 2013)																																																																	
척도	• 캔틸라 사다리(Canil ladder: 0점(최악)-10점(최선) 현재와 미래 평가의 평균, GWP)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satisfaction with life): ABS/GSS 1-5점, WVS 1-10점, European Social Survey 0(불만)-10점(만족) • 전반적인 행복감(happy with life): WVS/GSS 1-4점, ABS/GSS 1-5점, ESS 0(불행)-10점(행복)	• 긍정 감정 경험 여부(아예) • 휴식(well-rested), 존중받은 경험(rested with respect), 미소/웃음(smile or laugh), 흥미로운 일의 학습/경험(something interesting), 즐거움(enjoyment) • 부정 감정 경험 여부(아예) • 육체적 고통(physical pain), 걱정(worry), 슬픔(sadness), 스트레스(stress), 분노(anger)																																																																	
최고 및 최저 순위	WHR 2017 Report(2014-2016)	Gallup 2017 Positive experience 기준(2016)																																																																	
	<table border="1"> <thead> <tr> <th></th><th>Top10</th><th>Bottom10</th></tr> </thead> <tbody> <tr><td>1</td><td>노르웨이(7.537)</td><td>중앙공(2.693)</td></tr> <tr><td>2</td><td>덴마크(7.522)</td><td>브룬디(2.905)</td></tr> <tr><td>3</td><td>아이슬란드(7.504)</td><td>탄자니아(3.349)</td></tr> <tr><td>4</td><td>스위스(7.494)</td><td>시리아(3.471)</td></tr> <tr><td>5</td><td>핀란드(7.463)</td><td>르완다(3.471)</td></tr> <tr><td>6</td><td>네덜란드(7.377)</td><td>토고(3.495)</td></tr> <tr><td>7</td><td>캐나다(7.316)</td><td>기니아(3.507)</td></tr> <tr><td>8</td><td>뉴질랜드(7.314)</td><td>라이베리아(3.533)</td></tr> <tr><td>9</td><td>호주(7.284)</td><td>남수단(3.591)</td></tr> <tr><td>10</td><td>스웨덴(7.284)</td><td>에티오피아(3.593)</td></tr> </tbody> </table>		Top10	Bottom10	1	노르웨이(7.537)	중앙공(2.693)	2	덴마크(7.522)	브룬디(2.905)	3	아이슬란드(7.504)	탄자니아(3.349)	4	스위스(7.494)	시리아(3.471)	5	핀란드(7.463)	르완다(3.471)	6	네덜란드(7.377)	토고(3.495)	7	캐나다(7.316)	기니아(3.507)	8	뉴질랜드(7.314)	라이베리아(3.533)	9	호주(7.284)	남수단(3.591)	10	스웨덴(7.284)	에티오피아(3.593)	<table border="1"> <thead> <tr> <th></th><th>Top10</th><th>Bottom10</th></tr> </thead> <tbody> <tr><td>1</td><td>파라과이(84)</td><td>에티오피아(51)</td></tr> <tr><td>2</td><td>코스타리카(83)</td><td>타지키스탄(52)</td></tr> <tr><td>3</td><td>파나마(82)</td><td>이라크(54)</td></tr> <tr><td>4</td><td>벨라루스(82)</td><td>벨라루스(54)</td></tr> <tr><td>5</td><td>우즈베키스탄(82)</td><td>조지아(55)</td></tr> <tr><td>6</td><td>에콰도르(81)</td><td>방글라데시(55)</td></tr> <tr><td>7</td><td>파테말라(81)</td><td>아제르바이잔(55)</td></tr> <tr><td>8</td><td>멕시코(81)</td><td>리투아니아(56)</td></tr> <tr><td>9</td><td>노르웨이(81)</td><td>하티티(56)</td></tr> <tr><td>10</td><td>콜롬비아(80)</td><td>우크라이나(57)</td></tr> </tbody> </table>		Top10	Bottom10	1	파라과이(84)	에티오피아(51)	2	코스타리카(83)	타지키스탄(52)	3	파나마(82)	이라크(54)	4	벨라루스(82)	벨라루스(54)	5	우즈베키스탄(82)	조지아(55)	6	에콰도르(81)	방글라데시(55)	7	파테말라(81)	아제르바이잔(55)	8	멕시코(81)	리투아니아(56)	9	노르웨이(81)	하티티(56)	10	콜롬비아(80)
	Top10	Bottom10																																																																	
1	노르웨이(7.537)	중앙공(2.693)																																																																	
2	덴마크(7.522)	브룬디(2.905)																																																																	
3	아이슬란드(7.504)	탄자니아(3.349)																																																																	
4	스위스(7.494)	시리아(3.471)																																																																	
5	핀란드(7.463)	르완다(3.471)																																																																	
6	네덜란드(7.377)	토고(3.495)																																																																	
7	캐나다(7.316)	기니아(3.507)																																																																	
8	뉴질랜드(7.314)	라이베리아(3.533)																																																																	
9	호주(7.284)	남수단(3.591)																																																																	
10	스웨덴(7.284)	에티오피아(3.593)																																																																	
	Top10	Bottom10																																																																	
1	파라과이(84)	에티오피아(51)																																																																	
2	코스타리카(83)	타지키스탄(52)																																																																	
3	파나마(82)	이라크(54)																																																																	
4	벨라루스(82)	벨라루스(54)																																																																	
5	우즈베키스탄(82)	조지아(55)																																																																	
6	에콰도르(81)	방글라데시(55)																																																																	
7	파테말라(81)	아제르바이잔(55)																																																																	
8	멕시코(81)	리투아니아(56)																																																																	
9	노르웨이(81)	하티티(56)																																																																	
10	콜롬비아(80)	우크라이나(57)																																																																	
	참고: 부탄 97위(5.011)	참고: 부탄 138개국 중 82위(2013년)																																																																	
한국	• 155개국 55위(한국 5.838, 세계 평균 5.310)	• Gallup 2015 Global Emotion Report(2014년)* • 143개국 118위(한국 59, 세계 평균 71)																																																																	
변동	• 변동 폭 큼 • 한국은 2005-2007년 대비 개선도 38위	• 변동 폭 작음 • 한국 2013년 대비 2014년 -4점(24개 단 하락)																																																																	

퍼즐2. 2018년 한국, 누가 얼마나 행복하고, 불행한가?

Korea Is Not as
Unhappy as
Often Perceived

조사 결과를 보면 5점 척도(매우 불행~매우 행복)로 측정한 행복감(affective happiness) 문항에서 “불행(매우+약간)”으로 답한 비율은 18%, 보통 47%, “행복(매우+약간)”은 34%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인지적 차원의 삶에 대한 평가(cognitive evaluation)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불만(매우+약간)” 응답이 늘어 28%, “보통” 37% “만족(매우+약간)”이 32%로 나타났다. 두 지표 공히 부정적인 태도가 다수 여론을 점하는 것은 아니다. 헬조선이라는 유행어가 도는 나라치고는 생각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지배적인 수준은 아니다.

[그림1] 주관적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평가



주1) 주관적 웰빙 상태를 (1) 정서적 차원(행복감) (2) 인지적 차원(삶의 만족도)로 나누어 측정하는 방식은 세계가치조사(4점 척도), 아시안바로미터(5점 척도)에서 차용하였다.

주2) 질문 위당은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귀하께서는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현재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귀하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로 질문하였고 5점 척도로 답한 결과이다.

자료: 한국리서치 매월 정기조사(2018.1, n=1,000)

소득과 행복의 관계, 이스털린의 역설은 타당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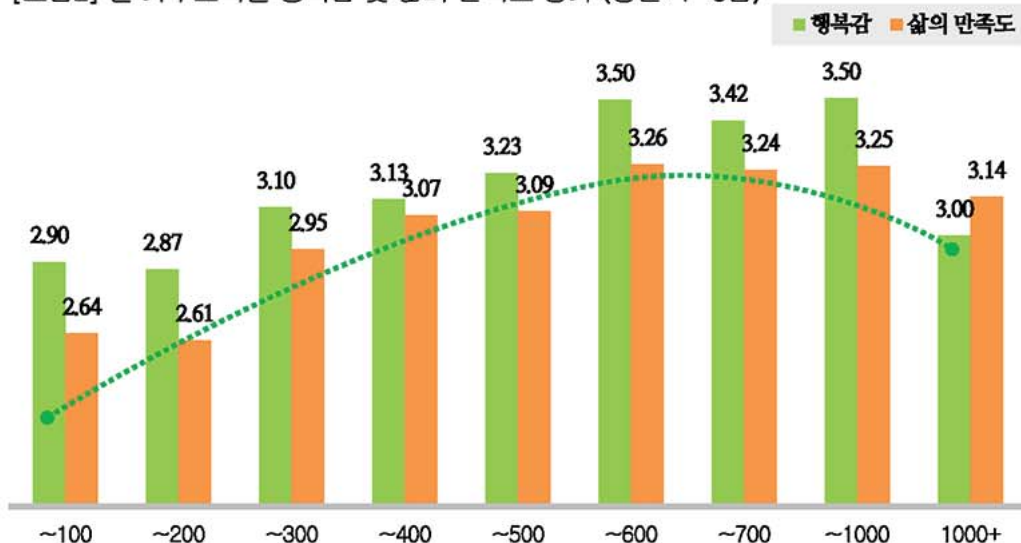
역U자형 패턴 : 월소득 600만원까지는 행복은 소득 순,
1천만원 넘으면 과유불급

경제적 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수준은 정체되어 있다는 1974년 이스털린의 실증 연구는 소득과 별개로 행복 수준에 대한 탐색을 본격화시킨 계기였다. 1946년부터 1970년까지 19개국의 30개 서베이 데이터를 분석에 기초한 주장은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로 불리며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성장과 소득 증진에 매달렸던 기존의 패러다임에 균열을 가져왔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국제비교 차원이 아닌 개인적 수준으로 시야를 좁히면 상황은 달라진다. 소득수준별로 행복 및 삶의 만족도 평가(1 매우 부정적, 3 보통, 5 매우 긍정적)의 평균점수를 보면 개개인의 차원에서 일정 소득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행복은 소득 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월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부터 600만원(연소득 7200만원)대까지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주관적인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평가가 일관되게 높아진다.

반면 소득 600만원~1,000만원대까지는 행복감, 만족도 평가 공히 정체구간이며, 월 가구소득 1000만원을 넘어선 집단에서는 오히려 행복감과 만족도 공히 이전 집단에 비해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특정의 고소득구간에 접어들면 소득 및 사회적 지위의 유지를 위한 스트레스 요인이 작용하여 경제적 부가 오히려 행복감 증진에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2] 월 가구소득별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 평가 (평균: 1~5점)



주1) 1은 매우 불행/불만, 3은 보통, 5는 매우 행복/만족을 의미

주2) 사례 수: 행복감 987명, 삶의 만족도 993명(모름/무응답은 제외한 평균값)임

세대와 행복 : 어느 세대가 가장 불행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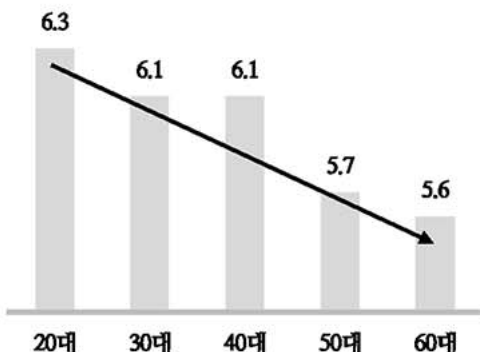
행복감 높던 20대, 불행세대로 전략 조정

사람은 생애주기별로 나뉘는 사회적 위험과 삶의 고충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행의 크기는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다. 나이와 행복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1) 노년세대 불행론(나이와 행복은 반비례 직선: 음의 계수 Winkelmann and Winkelmann 1998) (2) 중년세대 불행론(중년까지는 하락하다 노년시기에 상승하는 U자형 포물선 Clark and Oswald 1994) (3) 청-노년 불행론(중년까지 상승하다가 노년기에 하락하는 역U자형 포물선 Alesina et al. 2004) (4) 세대 차이는 없다(flat 형, Easterlin et al. 1994)는 주장이 대립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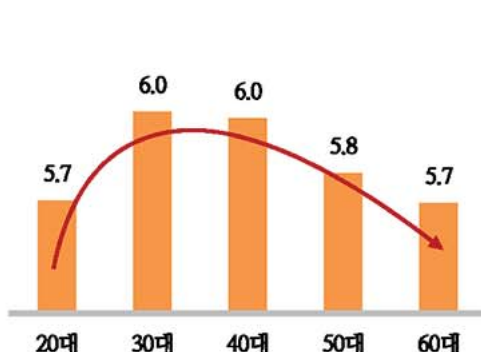
서구에서는 대체로 중년까지는 나이 들수록 행복지수가 낮아지다가 노년기에 상승하는 U자형 관계(대체로 55세가 변곡점)를 정설로 받아들여왔다(Economist "The U-bend of Life" 2010. 12. 16). 한국에서는 이와 달리 나이가 들수록 불행해 지는 반비례 관계가 확인되어 왔다. 즉 젊은 세대가 행복감이 높고 60대 이상에서 가장 행복감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였다(Zhou 2014). 실제로 한국일보의 2016년 행복 조사결과를 보면 0~10점으로 측정한 평균점수를 세대별로 비교해보면 20대는 6.3, 30대와 40대가 각각 6.1, 50대 5.7, 60대에서 5.6으로 60대가 가장 행복도가 낮은 세대로 꼽혔다.

이번 조사는 세대별 행복인식에 큰 변화의 조짐을 보여준다. 20대가 1(매우 불행)~5점(매우 행복)으로 측정한 값의 평균으로 행복지수를 산출해보면 20대가 3.0으로 가장 낮았고 30대~40대에서 3.3, 50대~60대에서 3.2로 역U자형 분포(inverted U-shape)를 보여주었다. 특히 20대가 가장 행복도가 낮은 세대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해적이나 최근 발표된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등의 행복지수에서도 청년층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나온 바 있다(연합뉴스 "삶의 행복지수, 20~30대가 최저...불안감은 최고" 2018. 02. 04). 최근 계속되는 청년실업과 N포 세대 담론 등 부정적 인식의 확산으로 20대의 행복감 저하 현상이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 있다.

[그림3] 2016년 1월 (평균: 0~10점)



[그림4] 2018년 1월 (평균: 0~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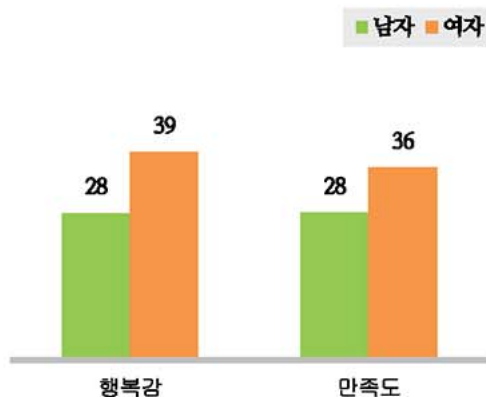
주1) 2016년 조사는 0~10점으로 조사한 결과, 2018년 조사는 1~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주2) 한국일보 2016년 1월 조사(2500명, 코리아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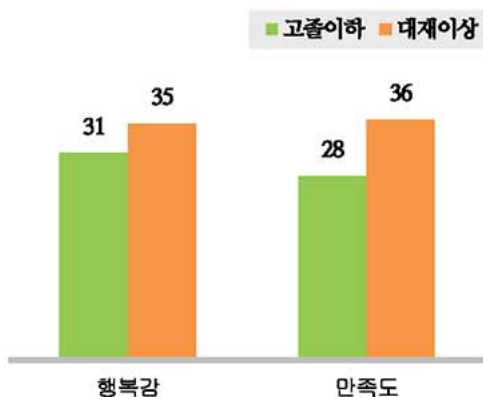
**고학력층, 여성,
기혼자, 2~3명
가족구성원일수록
행복 비율 높아**

기존 연구들에서 무엇보다 소득과 밀접하게 연관된 학력(직업) 요인이 삶의 만족도와 행복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별, 혼인 상태 별, 가족 규모별 행복(매우+약간)하다는 응답비율을 보면 여성일수록, 미혼 및 사별/이혼자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집단, 다가구원 가족 구성원 집단에서 행복하다는 응답비중이 뚜렷하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집단에서 행복하다는 응답은 다른 다가구원 가정에 크게 못 미친다. 사회적 고립이 불행올 키우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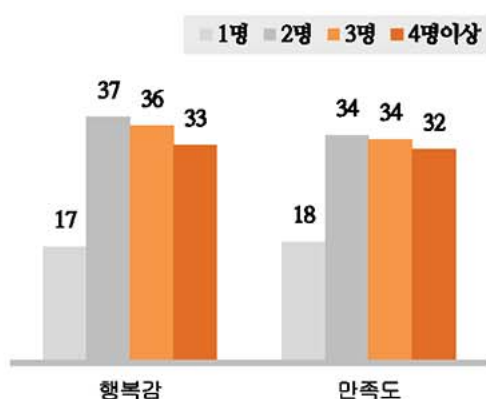
[그림5] 성별 행복(매우+약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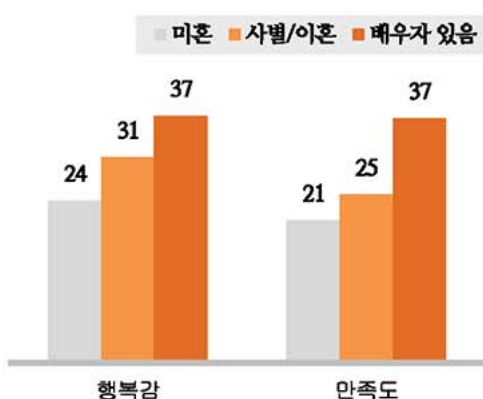
[그림6] 학력별 행복(매우+약간) 비율(%)



[그림7] 가족수별 행복(매우+약간) 비율(%)



[그림8] 혼인여부 행복(매우+약간) 비율(%)



주1) 행복감의 수치는 "매우 행복하다", "약간 행복하다"는 응답을 합한 비율이며, 만족도의 수치는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는 응답을 합한 비율이다.

퍼즐3. 종교와 이념의 상반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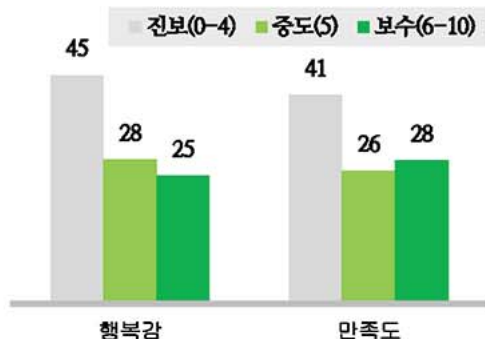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종교는 고립된 개인의 정신적, 사회적 지지기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역에서는 공동체 유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로 가정해볼 수 있다. 반대로 정치 이념적 요인은 정치적 효능감이나 정치 참여, 정치적 당파성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만, 개인의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Putnam 1995; Lewis-Beck et al. 2007).

이념은 행복의 변수
탄핵 후 보수 위축
정국의 영향인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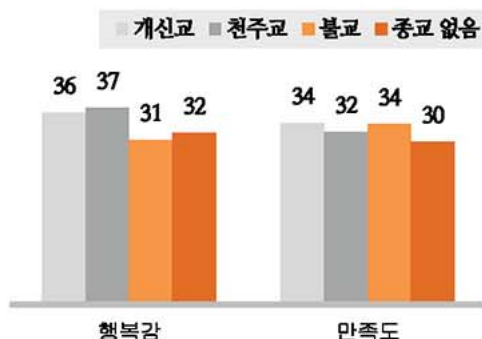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이러한 통념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주관적인 이념 성향 집단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된다. 상대적으로 이념적 진보층에서는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이 각각 45%, 41%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도층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이 행복감에서 28%, 삶의 만족도에서 26%에 그쳤고, 보수층에서도 행복감에서 25%, 삶의 만족도에서 28%에 그쳐 진보성향의 응답자들과 크게 대비되었다. 지난 2016년 촛불시위에서 2017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보수정치세력이 크게 위축되고, 반면 문재인 정부의 등장과정에서 진보 정치세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추측된다.

반면 종교변수를 보면 우선 행복도 평가에서 개신교, 천주교 신자 층에서 각각 36%, 37%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불교도와 비신자층에서 각각 31%, 32%로 다소 낮았지만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삶의 만족도에서는 개신교, 불교 신자가 각각 34%, 천주교 신자가 32%, 비신자층에서 3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응답결과만 보면 한국의 종교들이 신자들의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사회적 지지대 역할을 하는데 미흡한 것은 아닌지 성찰과 점검이 필요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9] 이념성향 행복(매우+약간) 비율(%)



[그림10] 종교별 행복(매우+약간) 비율(%)



주1) 행복감의 수치는 “매우 행복하다”, “약간 행복하다”는 응답을 합한 비율이며, 만족도의 수치는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는 응답을 합한 비율이다.

맺으며

그 동안 간헐적으로 한국의 행복인식에 대해 간헐적인 조사연구들이나 관련 보도들이 나왔지만, 지나치게 국가간 비교차원에서 거시적인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주로 한국의 행복수준이 얼마나 국제적으로 미약한지 이슈화하는 데 치중하면서 정작 한국인들의 행복에 대한 생각과 실제 실태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연구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리서치의 1월 정기조사를 활용하여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누가 행복감을 느끼고, 누가 삶에 불만이 큰 지 기존의 여러 이론적 설명들과 차분하게 대조해보고자 했다. 소득과 행복, 세대와 행복과의 관계에서 전통적인 시각과 배치되고,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들이 확인되었다. 즉 이스털린의 역설과 달리 개인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컸던 20대 청년세대에서 행복감 급감 현상이 확인되었다. 경제적, 인구학적 변수 외에 예상과 달리 정치이념적 요인이 한국사회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고립된 개인들의 지체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종교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대목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조사결과에 대한 기술(description)하면서 향후 관심을 가져야 할 쟁점들을 던지는데 치중했다. 행복 찾기 보고서 2호에서는 이번 분석에서 제외했던 행복의 결정요인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호에서 제기한 쟁점들에 대한 심화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진단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 "삶의 행복지수 20~30대가 최저...불안감은 최고" (2018/12/04)
2. 연합뉴스, "부탄의 행복지수 1위 바깥은? 행복의 기술 전합니다" (2017/05/10)
3. 오마이뉴스, "행복지수 1위 덴마크, 한국은 58위, 유엔-자문기구, '세계 행복 보고서' 발표" (2016/03/17)
4. 중앙일보, "한국인 맞춤형 행복지수 첫 조사" (2010/08/13)
5. 조선일보, "이런 기준으로 조사해도... 한국인 행복순위는 하위권" (2015/04/25)
6. 한겨레신문, "한국인 행복감, 세계 118위로 바닥권" (2015/03/29)
7. 한국일보, "한국인 47%만 행복하다... 조사 4개국 중 최저" (2016/01/18)
8. KBS뉴스, "부탄은 어떻게 행복의 나라가 되었나" (2016/12/27)
9. Alesina, A., R. Di Tella, and R. MacCulloch, 2004, "Inequality and Happiness: Are Europeans and Americans Differ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9-10, 2009-2042.
10. Clark, A. E., and A. J. Oswald, 1994, "Unhappiness an Unemployment?" *Economic Journal* 104, 648-659.
11.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 A. David and M. W. Rede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witz*. NY: Academic Press, 89-125.
12. Easterlin, R. A., C. M. Schaefer, and D. J. MacCulloch, 1993, "Will the Baby Boomers Be Less Well Off than Their Parents? Income, Wealth, and Family Circumstances over the Life Cycle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19, 3, 497-522.
13. Røjseth, P. and T. Børn, 2012, "The Mystery of the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Age," *Journal of Economic & Organization* 82, 525-542.
14. Gallup News, 2014, "People Worldwide Are Reporting a Lot of Positive Emotions," (2014/15/21).
15. Gallup, 2017 *Global Emotions*, 2016 Global Emotions.
16. Hellwell, J. F. and S. Wang, 2014,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Theory and Practice in Korea," S. Wang, ed. *Measuring and Explaining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 KDI Research Monograph 2014-02, 1-34.
17. Lewis-Beck, M. S., W. G. Jacoby, H. Nagengast, and H. F. Weisberg, 2008, *The American Voter Revisited*, MI: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8. New Economics Foundation, *The Happy Planet Index: 2016 Report*, *The Happy Planet Index: 2012 Report*, *The Happy Planet Index: 2009 Report*, *The Happy Planet Index: 2006 Report*.
19. Putnam, R. 1995, "Turning in, Tur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8, 4, 38-63.
20. Winkelmann, J. and R. Winkelmann, 1998, "Why are the Unemployed So Unhappy? Evidence from Panel Data," *Economica* 65, 259, 1-14.
21. Zhou, W., "Determinants of Korean Happiness: A Cross-Sectional Analysis," S. Wang, ed. *Measuring and Explaining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 KDI Research Monograph 2014-02, 82-108.

담당자 정한을 여론분석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여론 속의

여輿論論

CHAPTER



현안조사

02

현안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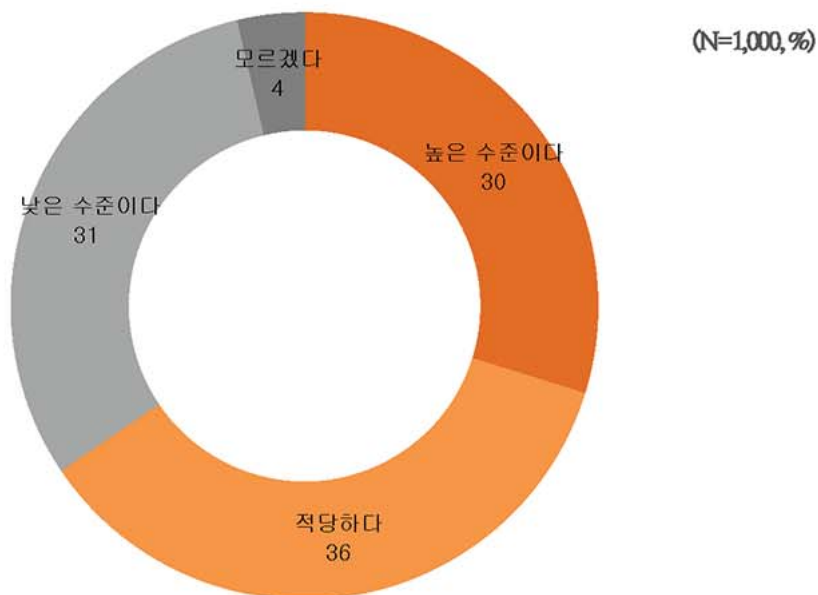
1. 최저임금과 일자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크지 않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에 대해 높은 수준이다 30%, 적당하다 36%, 낮은 수준이다 31%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이 높다는 비율(30%)보다 적당하다+낮은 수준이다의 비율이 67%로 더 높게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이 높다는 우려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Q 2018년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입니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영업자는 부정적,
판매/영업/서비스직과
학생은 상대적으로
긍정적

현행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자영업자(48%)의 경우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월등히 높아 현실적인 부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최저임금의 수혜 계층에 해당하는 판매/영업/서비스직(45%)과 학생(46%)에서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각각 45%, 4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Q 2018년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입니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너무 높은 수준이다	② 약간 높은 수준이다	①+② 높은 수 준이다	③ 적당하다	④ 약간 낮은 수준이다	⑤ 너무 낮은 수준이다	④+⑤ 낮은 수 준이다	모르겠다	계	평균
☐ 전체 ☐	(1,000)	8	22	30	36	24	7	31	4	100	3.0
직업											
농/임/어업	(22)	14	31	45	41	4	0	4	9	100	3.6
자영업	(137)	17	31	48	29	17	4	21	2	100	3.4
판매/영업/서비스	(49)	8	18	26	45	21	8	29	0	100	3.0
생산/기능/노무	(117)	8	14	22	32	35	9	44	3	100	2.8
사무/관리/전문	(218)	6	22	28	36	27	7	34	2	100	2.9
주부	(220)	4	23	27	33	26	6	32	7	100	2.9
학생	(53)	8	14	22	46	24	6	30	2	100	2.9
무직/퇴직/기타	(145)	9	20	29	39	18	9	27	5	100	3.0

50대 이상에서
부정적 인식이 강해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50대(34%)와 60대 이상 연령층(47%)에서 높았으며, 적당하다는 응답은 40대(42%),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30대(42%)에서 높아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20대의 경우, 30대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Q 2018년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입니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너무 높은 수준이다	② 약간 높은 수준이다	①+② 높은 수 준이다	③ 적당하다	④ 약간 낮은 수준이다	⑤ 너무 낮은 수준이다	④+⑤ 낮은 수 준이다	모르겠다	계	평균
☐ 전체 ☐	(1,000)	8	22	30	36	24	7	31	4	100	3.0
연령											
19-29세	(175)	4	18	22	37	29	8	38	3	100	2.8
30-39세	(173)	7	14	21	35	31	11	42	2	100	2.7
40-49세	(203)	4	15	19	42	28	7	35	4	100	2.8
50-59세	(201)	9	24	34	34	22	6	28	5	100	3.1
60세이상	(245)	15	32	47	32	13	4	17	4	100	3.4

**최저임금제 효과에는
부정적이지만,
1만원 인상 공약은
지켜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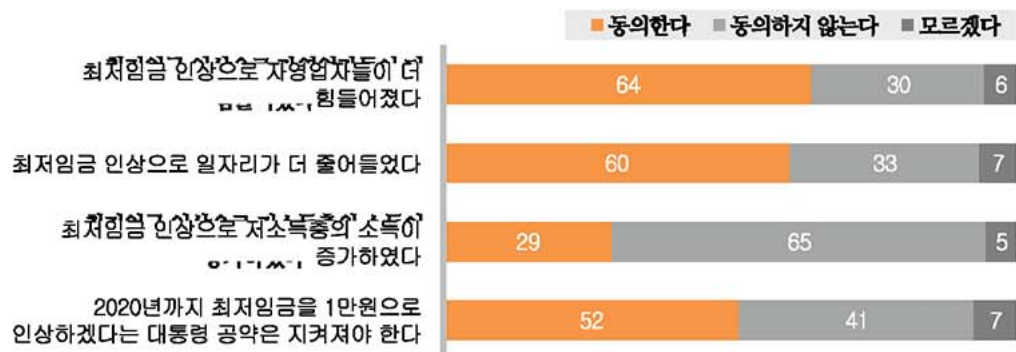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더 줄어들었다는 평가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이 60%,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평가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이 64%로, 과반 이상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였다는 평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응답은 65%로 과반 이상인 반면 동의한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하였다.

최저임금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41%)보다 높았다.

Q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N=1,000, %)



**40대 이하에서
1만원 인상 공약 준수에
대한 의견이 강해**

특히, 최저임금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20대, 30대, 40대에서 60%를 상회하는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 33%에 불과하여 연령에 따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Q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단위: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대체로 동의한다	①+② 동의한다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③+④ 동의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23	29	52	25	16	41	7	100
연령									
19~29세	(175)	28	33	61	16	10	25	13	100
30~39세	(173)	32	30	63	19	12	31	7	100
40~49세	(203)	27	36	63	21	10	31	7	100
50~59세	(201)	18	27	45	29	19	48	6	100
60세이상	(248)	13	20	33	36	26	62	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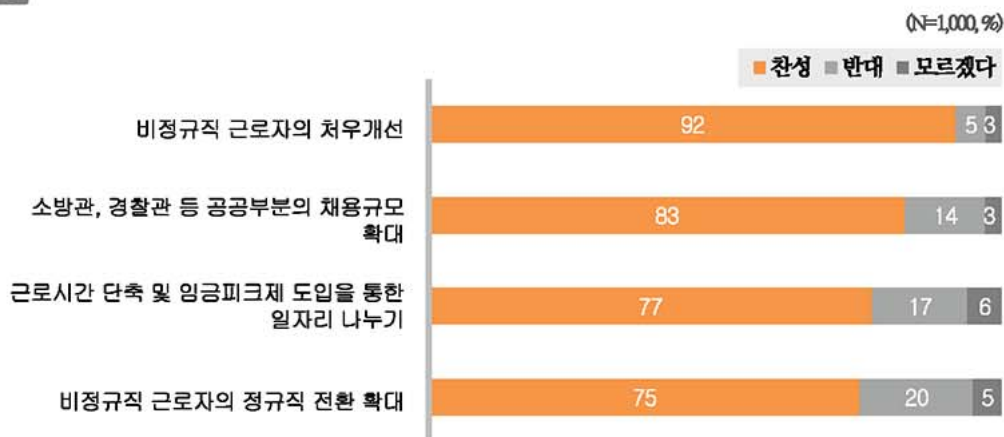
**일자리 정책에
전반적으로 찬성,**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이 찬성비율
가장 높아**

일자리 세부 정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찬성하는 응답이 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방관, 경찰관 등 공공부문의 채용규모 확대(83%)' >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77%)'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75%) 순이었다.

Q 일자리와 관련한 다음의 정책들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담당자 성현정 부장

전화 | 02-3014-0168

e-mail | hjseong@hrc.co.kr

02

현안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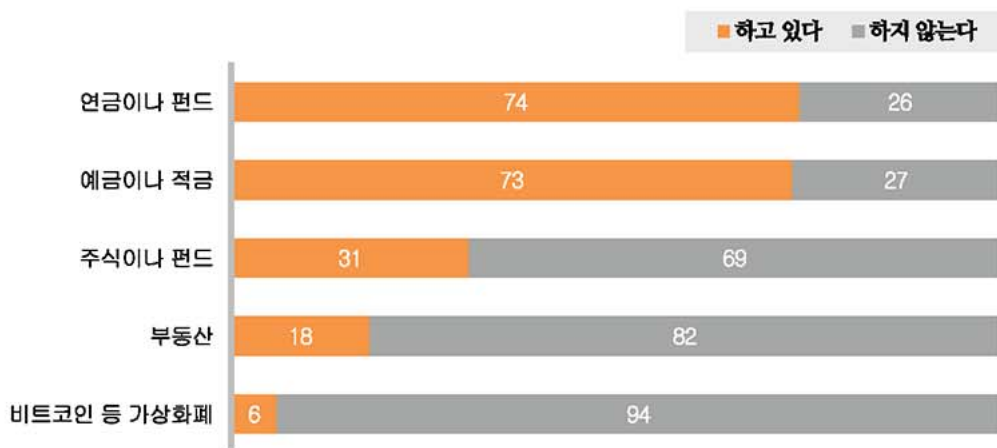
2. 주식·부동산·가상화폐

가상화폐 투자 비율은 6%에 불과, 주식 31%, 부동산 18% 우리 국민 중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비율은 6%에 불과한 반면, 주식 및 펀드 투자는 10명 중 3명(31%), 부동산은 10명 중 2명 (18%) 수준으로 가상화폐 투자 비율이 다른 재테크 수단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금이나 펀드(74%), 예금이나 적금(73%) 등은 4명중 3명 정도가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주된 재테크 수단임을 알 수 있다.

Q 현재 귀책에서 재산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재테크 수단은 무엇입니까?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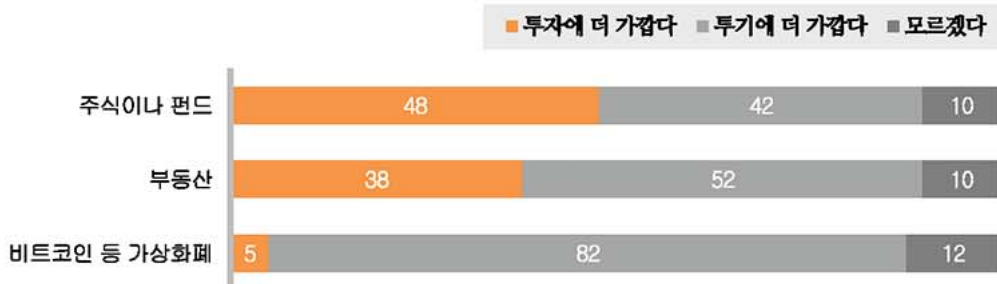
투기에 가깝다
가상화폐 82%,
부동산 52%, 주식 42%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재테크 수단의 경우,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깝다는 비율이 주식이나 펀드(42%) < 부동산(52%) < 가상화폐(82%) 순으로 높았다. 특히,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투기에 가깝다고 인식하였으며, 가상화폐 투자자 중에서도 65%가 투기에 가깝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식이나 펀드(투자자의 18%), 부동산(투자자의 21%)과 비교할 때 투자자들이 투기로 인식하는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Q 귀하는 다음의 재테크 수단이 투자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투기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N=1,000, %)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보도로
근로의욕이 저하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을 통해 큰 수익을 얻었다는 보도로 근로의욕이 저하된다는데 동의한다는 응답이 73%로 근로의욕 저하 논란이 사실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 의욕 저하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는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투자자들 역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Q 귀하는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화폐 등에 대한 투자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뉴스나 소문이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N=1,000, %)



부동산과 가상화폐 모두 관련하여,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7%, **정부 규제는 강화해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5%로 규제 강화 입장이 다수로 나타났다.

Q 귀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부동산)에 대한 정부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전체)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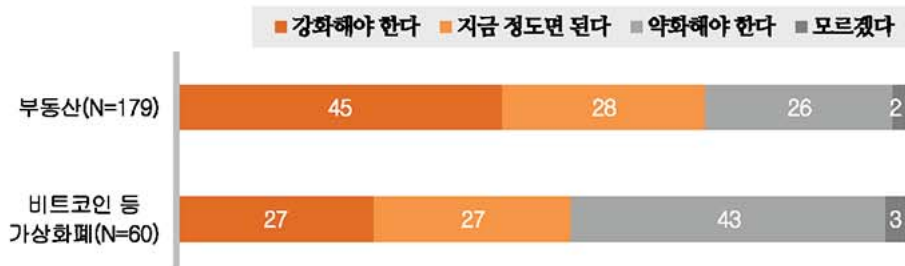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규제 반발 우려

부동산 투자자 중 45%도 부동산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가상화폐 투자자들 중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7%로 낮은 특징을 보였다. 특히, 가상화폐 투자자들 중 43%가 오히려 정부 규제를 약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 규제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Q 귀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부동산)에 대한 정부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투자유)

(N=23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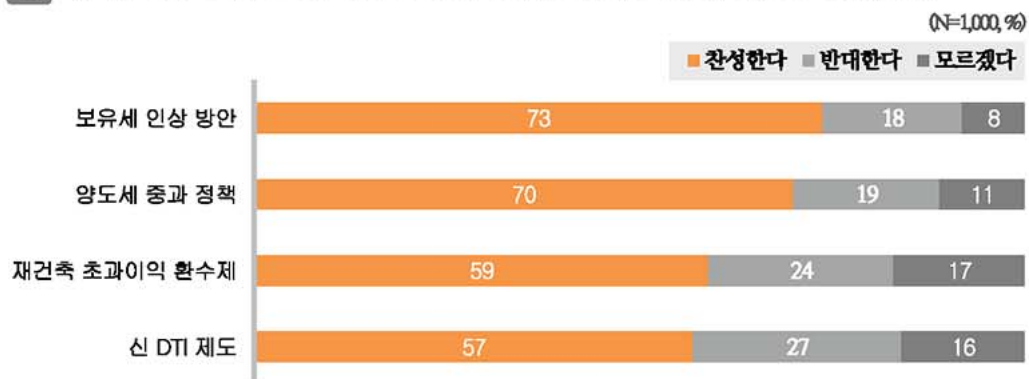


**부동산 정책에는 찬성,
특히 보유세, 양도세
찬성비율 높아**

부동산 규제 방안별 도입에 따른 입장을 보면,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보유세 인상방안'이 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양도세 증과 정책'이 70% 찬성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59%, '신 DTI 제도'는 57%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세계개편을 통한 규제 강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대출규제 등에 대해서는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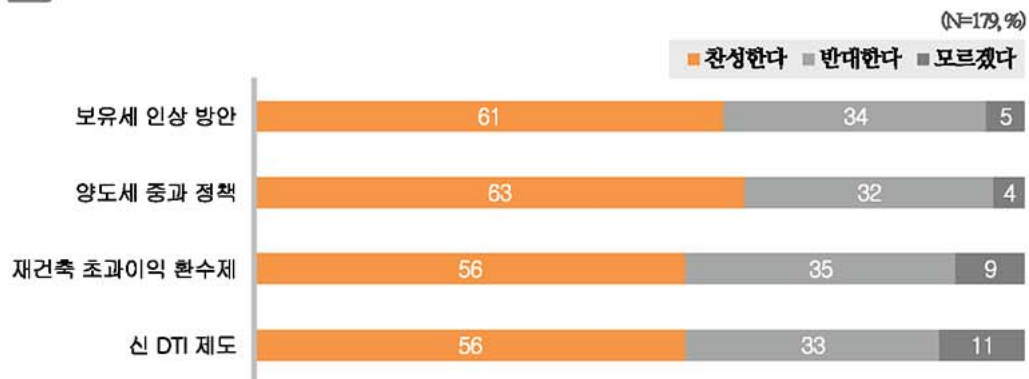
Q 귀하는 다음의 부동산 정책들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전체)



**부동산 투자자도
규제 방안에 찬성 비율
높아**

부동산 투자자들의 경우, '보유세 인상 방안'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1%, '양도세 증과 정책'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3%로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및 '신 DTI 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응답자들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Q 귀하는 다음의 부동산 정책들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부동산 투자자)



20대의 재테크는 가상화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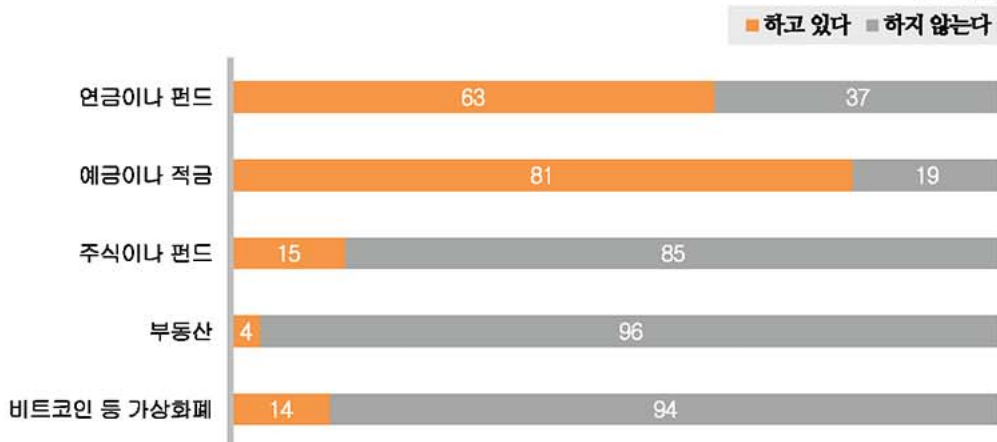
20대의 경우, 예금이나 적금 을 하고 있다는 비율은 81%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지만,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등 주요 재테크 수단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20대의 14%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연령대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재테크를 위한 기본 자산이 부족한 20대의 경우, 주식이나 펀드 또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여의치 않다는 한계로 인해 가상화폐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인식 및 규제에 대한 입장에서 다른 연령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가 투기에 더 가깝다는 응답도 전체 (82%)보다 낮은 76%이며,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전체(75%)보다 낮은 59%에 불과하였다.

Q 현재 귀책에서 재산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재테크 수단은 무엇입니까?

(N=175, %)



담당자 박종선 수석부장

전화 | 02-3014-0085

e-mail | have21c@hrc.co.kr

여론 속의

여輿論論

CHAPTER



03

정기조사

03

정기조사

1.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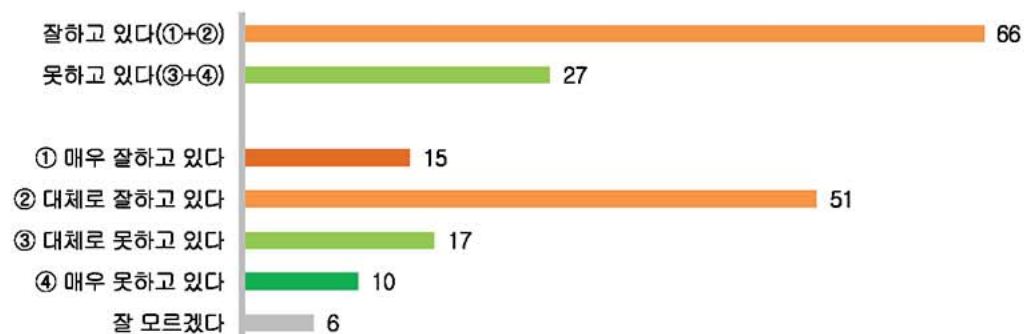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전월 대비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66%는 잘하고 있다고 한 반면, 27%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비율은 지난달 대비 6%포인트(72% → 66%)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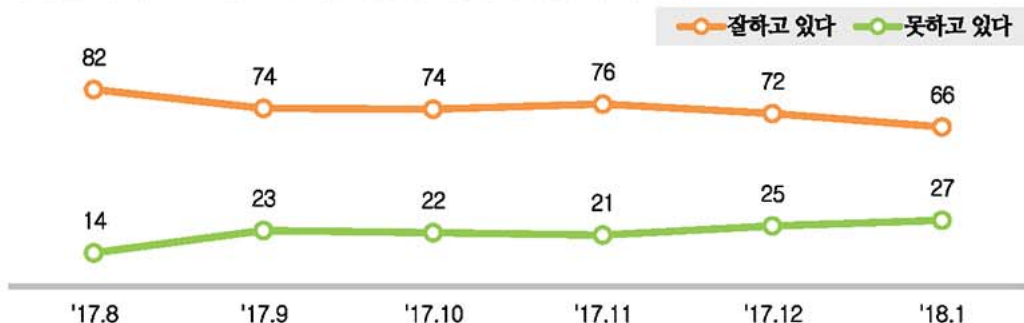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67%, 30대 77%, 40대 78%, 50대 66%, 60세 이상 48%이며 연령대별 추이를 보면, 지난달 대비 20대와 30대에서 각 17%포인트, 15% 포인트 하락하여 하락폭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 88%, 중도 70%, 보수 41%이며 이념성향별 추이를 보면, 지난달 대비 보수에서 10%포인트 하락하여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잘하고 있다 66%, 못하고 있다 27%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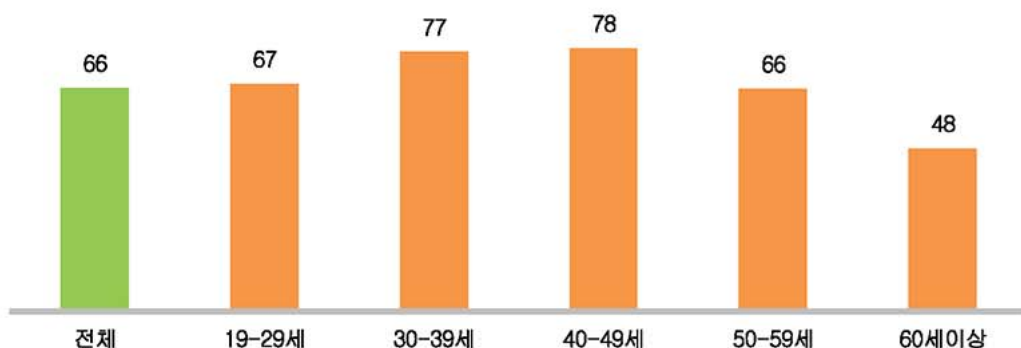


지난달 대비 6%포인트 하락, 지난해 8월부터 전반적 하락세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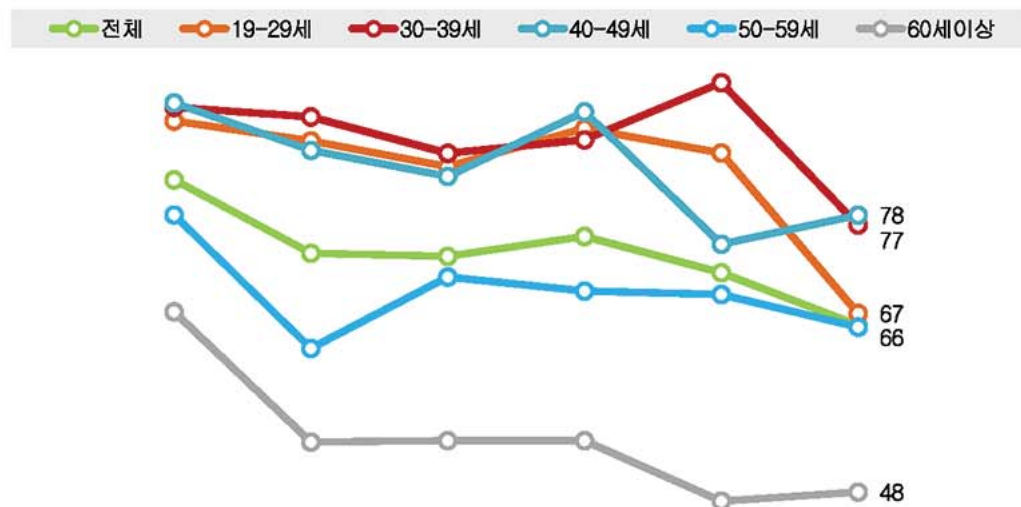
30대 77%, 40대 78%로 상대적으로 높아

(N=1,000, %)



지난달 대비 20대와 30대 하락 두드러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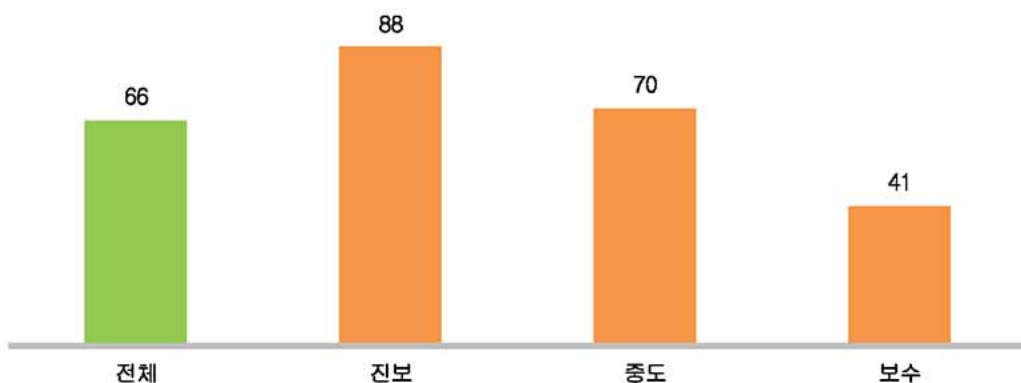
(N=1,000, %, %p)



	'17.8	'17.9	'17.10	'17.11	'17.12	'18.1	전월 대비
전체	82	74	74	76	72	66	-6
19-29세	88	86	83	87	85	67	-17
30-39세	90	89	85	86	92	77	-15
40-49세	90	85	82	89	75	78	+3
50-59세	78	64	71	70	69	66	-4
60세 이상	68	54	54	54	47	4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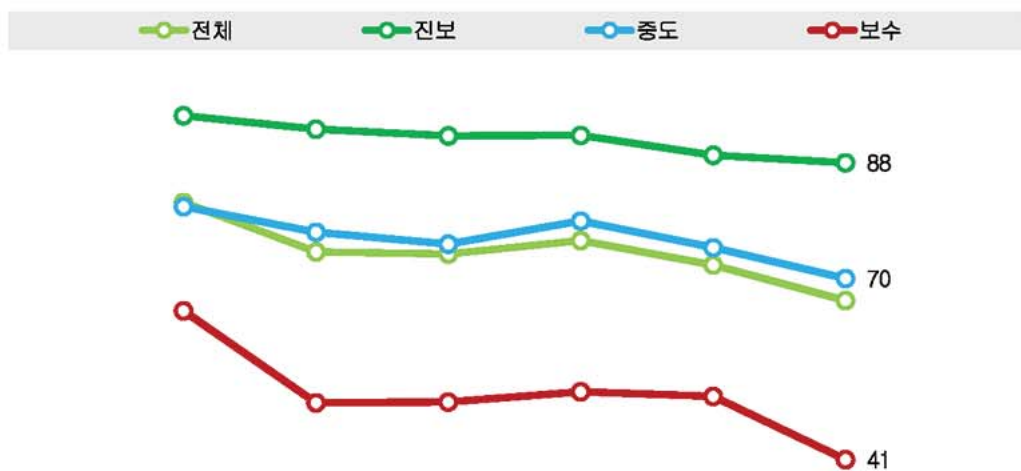
진보 88%, 중도 70%, 보수 41%

(N=1,000, %)



지난달 대비 보수층에서의 하락 두드러져

(N=1,000, %, %p)



	'17.8	'17.9	'17.10	'17.11	'17.12	'18.1	전월 대비
전체	82	74	74	76	72	66	-6
진보	95	93	92	92	89	88	-1
중도	81	77	75	79	75	70	-5
보수	65	50	50	52	51	41	-10

03

정기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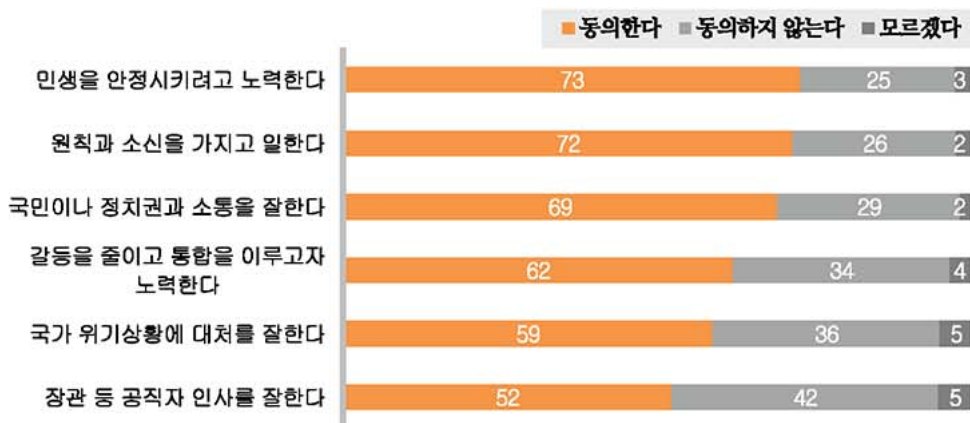
2. 대통령 리더십 평가

대통령 리더십 평가는 대통령 리더십을 6가지 차원으로 각각 평가하게 한 결과, 민생안정노력에 긍정평가가 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원칙과 소신(72%), 소통(69%), 통합노력(62%), 위기상황대처(59%), 공직인사(52%) 순이다.

위기상황 대처 항목의 하락폭 커

리더십 차원별 평가 추이를 보면, 지난달 대비 위기상황대처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7%포인트 하락하여 하락폭이 가장 크다.

민생안정에 대한 평가 가장 높고, 공직 인사 평가 가장 낮아 (N=1,000, %)



지난달 대비 위기상황대처에 대한 평가 하락 두드러져 (N=1,000, %, %p)

	'17.8	'17.9	'17.10	'17.11	'17.12	'18.1	전월대비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한다	84	79	76	78	75	73	-2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한다	81	76	77	77	75	72	-3
국민이나 정치권과 소통을 잘한다	81	72	75	72	72	69	-3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75	69	68	67	65	62	-3
국가 위기상황에 대처를 잘한다	68	58	59	72	66	59	-7
장관 등 공직자 인사를 잘한다	58	50	49	54	51	52	1

03

정기조사
3. 국가 경제 인식국가경제 인식지수
-23

국가경제에 대한 인식을 현재 상황 평가와 이후 전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뒤, 평가와 전망의 순 긍정 응답비율을 산술평균 하여 지수화를 시도(-100과 100사이의 값) 하였으며, 미국갤럽의 경제인식 인덱스(Gallup's U.S. Economic Confidence Index)를 참고하여 지수화 했다.

국가 경제 인식 지수는 -23이며, 이념성향별로 보면 국가 경제 인식 지수가 진보에서 -2, 중도에서 -22, 보수에서 -46로 진보에 비해 보수의 국가 경제 인식이 부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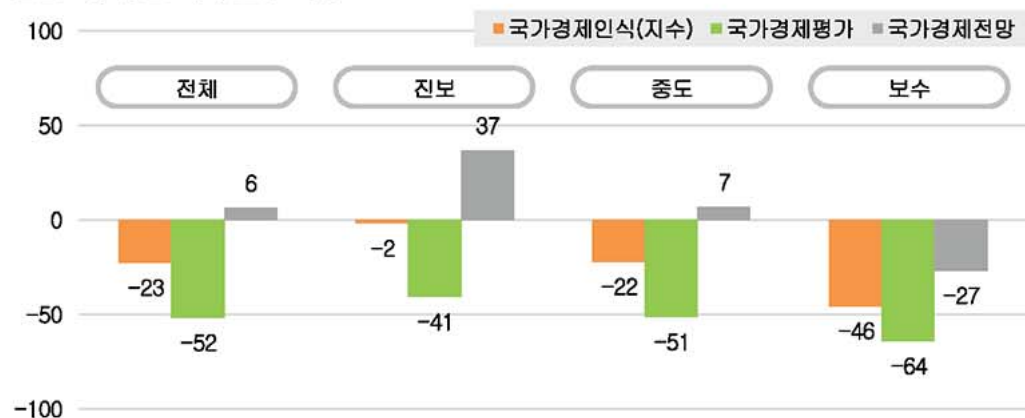
경제 인식 지수 -23

(N=1,000)

우리나라 경제상황 평가	좋다 (a)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나쁘다 (b)	모르겠다	계	좋다-나쁘다 (a-b)
	8%	30%	60%	1%	100%	-52(A)
우리나라 경제상황 전망	나아질 것이다(c)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d)	모르겠다	계	나아질 것- 나빠질 것 (c-d)
	33%	38%	26%	3%	100%	6(B)
국가경제인식(지수): A와 B의 평균						-23

진보 -4, 중도 -44, 보수 -91

(N=1,000)



03

정기조사
4. 국가 안보 인식국가안보 인식지수
-14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을 현재 상황 평가와 이후 전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뒤, 평가와 전망의 순 긍정 응답비율을 산술평균 하여 지수화 시도(-100과 100사이의 값)했다.

국가 안보 인식 지수는 -14이며, 이념성향별로 보면 국가 안보 인식 지수가 진보에서 +16, 중도에서 -10, 보수에서 -52로 진보에 비해 보수의 국가 안보 인식이 부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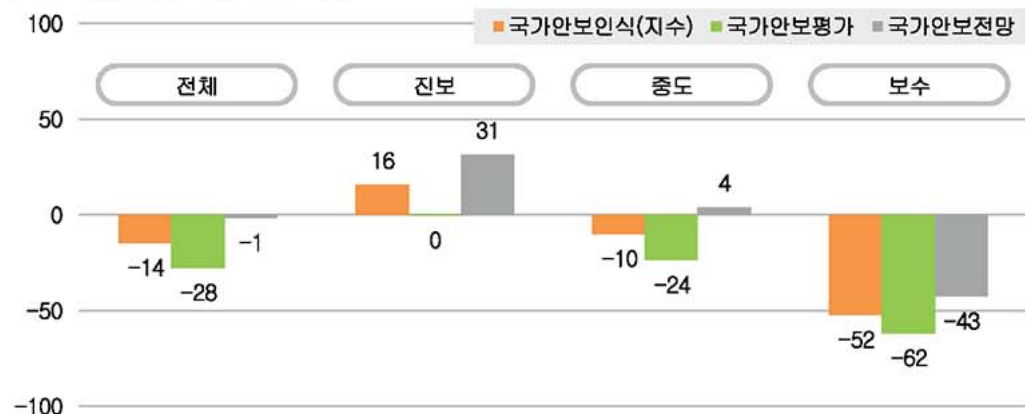
안보 인식 지수 -14

(N=1,000)

우리나라 안보상황 평가	좋다 (a)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나쁘다 (b)	모르겠다	계	좋다-나쁘다 (a-b)
	19%	32%	47%	2%	100%	-28(A)
우리나라 안보상황 전망	나아질 것이다(c)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d)	모르겠다	계	나아질 것- 나빠질 것 (c-d)
	28%	41%	29%	3%	100%	-1(B)
국가안보인식(지수): A와 B의 평균						-14

진보 +16, 중도 -10, 보수 -52

(N=1,000)



담당자 오승호 차장

전화 | 02-3014-0167

e-mail | shoh@hrc.co.kr

여론 속의

여輿論論

CHAPTER

04

개요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MS 패널(2017년 12월 기준 40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립가중) (2017년 9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메일 발송 6,028명, 메일오픈 1,788명, 조사완료 1,000명 (발송대비 16.6%, 오픈대비 55.9%, 참여대비 84.0%)
조사일시	• 2018년 1월 26일~31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여론 속의

여輿론論

40 YEARS Hankook Research

